

미코바타 광산에는 1,000 년이 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인근의 아케노베와 이쿠노의 광산과 함께 미코바타는 수 세기 동안 은과 구리 등을 산출했으며, 19 세기 말 무렵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1909 년 아케노베 광산에서 새 광맥이 발견되자 1919 년 미코바타 광산을 폐쇄하고 새로 선광장을 건설했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확장공사를 실시해 동아시아 최대 규모의 선광장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아케노베에서 채굴된 광석은 열차로 미코바타 선광장까지 운반되고, 그곳에서 여러 공정을 거쳐 필요한 광물만 선광됩니다. 선광된 구리, 아연, 주석은 제련을 위해 다른 곳으로 출하되었습니다.

선광장은 1987 년에 폐쇄되었습니다. 건물은 2004 년에 해체되었으며 콘크리트 건물 기초부와 탈수 및 여과를 실시하는 거대한 ‘시크너(시멘트 깔때기)’만 남아있습니다.